

전주시 사회적경제 시민장터 개최

29~30일 풍남문 광장서 첫 개최... 생산품 판매·홍보 등 11월까지 매월 이틀씩 진행

공동의 이익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시민장터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풍남문 광장에서 '2022 전주시 사회적경제 시민장터'(이하 시민장터)의 첫 번째 장터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장터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다. 전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 공공기관 등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전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대표 이종락)가 주최한다.

행사 전반에 친환경 소재를 활용키로 했다. 지역 내 상권과 공공기관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상생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시민장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판매·체험부스(30개) 운영 △ 사회적경제단체 문화 예술공연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경제 라이브커머스 등이 운영된다. 여기에 △추석한가위장터(9월) △거리인형극축제(10월) △가래떡 나눔행사 등 매월 특색 있는 행사도 진행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문화·예술공연, 지역행사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민장터는 이번 첫 행사를 시작으로 △8월 26~27일 △9월 7~8일 △10월 13~14일 △11월 11~12일 개최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7월에만 폭염에 대비해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며, 8~11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시는 이번 시민장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매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중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시민장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에게는 협동과 연대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케이트와 인라인 특강을 운영한다.(사진은 전주빙상경기장에서 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들 모습)

“여름방학 스케이트·인라인으로 더위 잊어요”

전주시설공단, 전주빙상경기장·인라인롤러경기장서 특강 운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케이트와 인라인 특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해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케이트와 수영, 승마, 배드민턴, 매직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의 특강반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송민수 체육관운영부장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무더위를 잊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이후 2년여 만에 재개되는 방학 특강인 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공단은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전주빙상경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트 종목 특강반을 4개, 피겨스케이트 종

목 특강반을 3개 운영한다. 또 전주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총 3개 특강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된 방학 특강반이 스케이트를 시작으로 2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운영사업자 모집

전주시, 8월 1~3일 운영 수탁기관 제안서 접수

전주시가 전주남부시장 공간에 들어설 특산물 공동판매장의 운영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도 내 우수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남부시장 공동판매장'을 운영할 수탁기관의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남부시장 옛 원예농협 건물 자리에 151㎡ 규모로 조성되는 남부시장 공동판매장은 전라북도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과 제로웨이스트(ZeroWaste) 매장, 식음료 판매 공간, 공연장 등을 갖춘 전통시장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이 공동판매장을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오는 9월 완공할 계획이다. 남부시장 공동판매장을 운영할 수탁기관은 향후 5년 동안 최소 10개 이상의 전북 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로웨이스트와 2060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고 공연·체험 등 남부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위탁 예상가격은 1년에 약 7486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제안서 신청 자격은 전북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중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받은 시설에 직접 상주해 직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다. 2개 업체 이내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희망 법인·단체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등을 작성해 전주시 일자리창년정책과 전통시장 육성팀(완산구 풍남문1길 19-3, 2층)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10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접수가 총 70점 이상인 법인·단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해 최종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지원업체 추가 모집... 1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전주시가 일 하기 좋은 일터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복지편익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제조시설을 구비한 종업원 수 200인 미만의 전주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환경·조명·집진 시설 등 근무환경개선 △화장실·구내식당·

기숙사·휴게실 등 복지편익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무환경개선은 2000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복지편익시설 개선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은 서식을 작성해 방문,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공고문에 게재된 심사표에 의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공장 노후화 정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이다.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관계자는 "환경개선사업의 수요가 많아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률을 70%로 조정해 작년 대비 65% 정도 증가한 기업체가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컨설팅·특별점검

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12일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화재예방 컨설팅 및 특별점검을 8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건물 출입구 폐쇄, 제한되었던 출입구를 개방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상황에 원활한 대피를 위한 조치이다.

점검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은 943개소(완산관내)로 노유자시설(467개소), 숙박시설(195개소), 교육연구시설(147개소), 문화집회시설(53개소), 의료시설(47개소), 판매시설(34개소) 등이다. 완산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잠금상태 점검 △민관 소통 및 협업을 위한 안전관리 간담회 운영

△주요 취약시설 책임간부 멘토링 실시 △안전내문 발송, 픽토그램 설치 통한 출입구 개방 홍보에 나선다. 김장수 서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원활한 피난동선 확보는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11개 도서관서 즐기는 여름방학특강 독서 프로그램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알차고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시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 11개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 400여 명을 대상으

로 여름방학특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놀이와 책을 결합한 독후활동을 통해 책 읽기와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특강은 총 34개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그림자극 체험 △아트북 만들기 △아동미술 △그림책과 함께하는 요리 △여름식물 키우기 △과학놀이 △클레이 미니어처 △라탄공예 △토퍼리 만들기 등이다. 어린이들은 매 수업마다 주제 도서를 활용해 만들기와 그리기, 요리하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